



중양도서관 오는 길대중교통 이용안내



버스노선	출발지	주요경유지	종착지	비고
402번	신정호	평생학습관-주공2단지-용화중학교-시외버스터미널-온양온천역	오목초교	용화중 하차
403번	신정호	평생학습관-주공2단지-용화중학교-시외버스터미널-온양온천역	신창교아루에듀파크	
404번	신정호	평생학습관-주공2단지-용화중학교-시외버스터미널-온양온천역	순천향대	
503번	평생학습관	용화아이파크-온양온천역-아고사거리	둔포 이지더원(차)	아이파크 하차
710번	평생학습관	중양도서관-용화고-온양온천역-아산시외버스터미널	천안아산역	중양도서관 앞 하차
850번	평생학습관	중양도서관-용화고-온양온천역-아산시외버스터미널	구령리	

※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버스정보시스템(<http://busasan.go.kr>)을 확인해 주세요.
※ '아산버스' 어플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01 중양도서관	남부로 229	041)530-6600/6610
02 송곡도서관	염치읍 송곡남길 82-4	041)537-3951
03 배방도서관	배방읍 모산로 140-12	041)537-3956
04 둔포도서관	둔포면 둔포중앙로 161번길 27-6	041)536-8595
05 어린이도서관	시민로 500 3층	041) 536-8616
06 탕정온생도서관	탕정면 한내로 209	041)536-8740

공립 작은도서관

01 인주꿈꾸는 땀나무 작은도서관	인주면 공세리 성당길 1	
02 탕정 작은도서관	탕정면 탕정면로 36 (주민자치센터 3층)	041)543-6203
03 배방 어린이 북카페	배방읍 배방로 38 (주민자치센터 1층)	041)534-7956
04 남산 작은도서관	남산로 10	041)541-7954

이코아산
행복한 시민

함께 살아가는
독서와 정경

아산시립도서관 소식지
DECEMBER-2018

책다들

**자연은
우리의
친구야**

장소 : 은행나무길 소중도서관
대상 : 아산시민 누구나, 회당 40명 선착순

연월일시	활동내용
11:00 ~ 12:00	누름 놀이 풍미활동 만들기
13:00 ~ 14:00	에코아트 조각 만들기
14:00 ~ 15:00	누름 놀이 풍미활동 만들기



송곡도서관 야외특별프로그램 자연은 우리의 친구야

자료실 이용시간

- 중앙 / 송곡 / 배방 / 둔포 / 탕정온생도서관 화~토 09:00 ~ 22:00 일요일 09:00 ~ 18:00
- 어린이도서관 화~토 09:00 ~ 18:00 일요일 09:00 ~ 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단, 열람실은 월요일에도 운영합니다)

열람실 이용시간

- 중앙 / 송곡 / 배방 월~일 08:00 ~ 24:00
- 둔포 화~일 09:00 ~ 24:00

ASAN CITY LIBRARY
아산시립도서관



도서관별 행사안내

각 도서관별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01

CBS발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회

일시 | 12.15.(토) 17:00~18:00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강당(안다미로)
내용 | 도서관에서 듣는 클래식
대상 | 아산시민 누구나
접수 | 선착순 입장(무료)
문의 | 530-6623



송곡도서관

02

두근두근 크리스마스

일시 | 12.15.(토) 11:00~12:00/14:00~15:00
12.22.(토) 11:00~12:00/14:00~15:00
장소 | 송곡도서관 1층 프로그램실
내용 | 크리스마스 트리메모꽃이, 캔들 리스,
스노우볼 만들기
대상 | 초등1~4학년
접수 | 홈페이지 접수(선착순)
12.04.(화) 09:00~
문의 | 537-3951



어린이도서관

03

책 읽어주세요

일시 | 매주 토요일 14:00~16:00
장소 |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내용 | 원하는 책을 가져와서
'책 읽어주세요'를 외치면 책을 읽어드립니다
대상 | 유아 및 초등
접수 | 별도 접수 없음
문의 | 536-8618



아산시립도서관 회원가입

발급대상 | 아산시민 및 인접지역 주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산시, 천안시, 공주시, 당진시, 예산군, 평택시인 사람)
구비서류 | 성 인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청소년 - 청소년증
-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어린이 - 부모동반(신분증지참)과 주민등록등본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신분증과 재직(재학)증명서

STEP 1

도서관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준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홈페이지 상 아이핀인원)

STEP 2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정회원 등록

STEP 3

회원증 발급 후
도서관서비스
이용가능

탕정은생도서관

04

내가 만드는 크리스마스

일시 | 12.15.(토)~12.16.(일)
 양말 10:00~11:00/11:00~12:00 (총4회)
 장소 | 탕정은생도서관 문화프로그램실
 내용 | 크리스마스 모빌, 자금통, 성탄스탠드,
 캔들 등 크리스마스 작품 만들기
 대상 | 7세~초등4학년
 접수 |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12.05.(수) 09:00~
 문의 | 536-8740



Winter Vacation

[겨울방학 특강 접수]

방학을 맞이하여 아산시립도서관에서 다채로운 겨울방학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신나는 방학!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접수기간 및 방법 | 12.18.(화) 09:00 ~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자료 대출/반납

대출자격 | 아산시립도서관 회원증을 발급 받으신 분
 대출권수 | 10권 (타도서관 대출도서 포함 총10권)
 대출기간 | 14일 (연장없음)
 도서연체 | 권수에 상관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
 도서반납 | 아산시립도서관 6개관(중앙·송곡·배방·둔포·아린이·탕정은생)
 *자료실 이용시간 이후에는 무인자가반납기 또는 반납함을 이용해 주세요.

도서관 이용 Tip

우리 집 앞 도서관으로!
상호대차 서비스

읽고 싶은 책이 먼 도서관에 있을 경우, 가까운 도서관으로 책을 배달해 드립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도서관에 후 상호대차 신청



대출받을 도서관 선택



도착안내 문자 확인 (앱이나 대출)



회원증 소지 후 대출반납

※ 상호대차신청도서 미 대출횟수가 3회 초과 시 30일 동안 상호대차 신청이 제한됩니다.


DECEMBER-2018

도서관 알뜰미

2018년 시립도서관 책 읽는 가족

가족단위의 독서생활화를 통하여 책 읽는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공공도서관 이용자 중 도서관을 잘 이용하는 가족을 발굴하여 추천·선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아산시립도서관 책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가족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도서관협회&아산시립도서관

중앙도서관



실재윤, 유원순, 실준혁, 실민준 가족

송곡도서관



윤태섭, 나연상, 윤신형 가족

매방도서관



고범석, 박조희, 고동현, 고동은 가족

둔포도서관



박정균, 이숙, 박원서, 박서윤, 박원하 가족

어린이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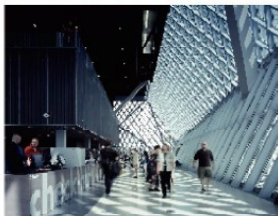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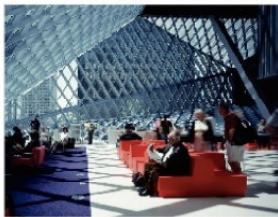


김복, 이미정, 김민지, 김민소 가족

탕정온샘도서관



박태복, 박지혜, 박시우 가족



DECEMBER-2018 특집코너

모두를 위한 도서관, 시애틀 공공 도서관

Seattle Public Library

언뜻 보기에는 도서관이 맞나 싶을 정도의 멋진 외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 도서관은 미국에 위치한 시애틀 공공도서관이다. 화려한 겉모습뿐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면 벽 사이사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효율적인 동선 등 이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있다.

1890년도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카네기의 도서관 기금으로 지은 중앙도서관 건물을 70년간 사용하다가 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로 인해 1960년 4배의 규모로 증축하였다. 하지만 다시 떠오른 공간부족 문제와 급속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8년 '모두를 위한 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축 되었다.

1. 과거를 더하다

시애틀 도서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시애틀 롬은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과거를 지내왔는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들과 그림, 지도 등 다양한 자료가 공존한다.

2. 자연을 더하다

시애틀 도서관은 유리를 이용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은 건축디자인으로, 자연광으로 곳곳을 채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유리나 철골을 이용한 다이아몬드 형의 외관이 경사지게 설계되어 에너지효율이 일반건물에 비해 40% 이상 높다고 한다. 또한 햇빛은 실내 정원을 가꾸어 공기 정화에도 이용된다.

3. 재미를 더하다

도서관 곳곳에는 신기한 예술작품들이 놓여 있다. 에스컬레이터 옆쪽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 유리공예가 칠흙리의 작품 등 심오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곳곳에 위치해 정숙할 것만 같은 도서관에 재미를 더한다.

사진출처: domawe.net

사서추천도서 및 서평
사서가 추천하는 '창립도서20'

어린이 도서



거절한다는 것: 햄버거와 피자의 차이

김상신 지음 | 창우·하늘소 펴냄

나 율 사서·중앙도서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요구와 부탁을 받을 때가 많다. 정당한 요구는 가까이 들어줄 수 있지만 무리한 요구와 부탁은 거절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작 어른들도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것이 힘든데 어린이 친구들은 많은 관계 속 거절이 더욱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 친구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선함과 양심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청소년 도서



잠자, 아파트 경비원이 되다

김경연 지음 | 사계절 펴냄

박해수 사서·중앙도서관

이 책은 아파트 경비원인 장두루 할아버지와 광범한 중학생 민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잠자'와 연계한 자연스러운 뜻풀이와 짙막한 해석을 더해, 철학이라는 주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낸다. 이마도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일반 도서



포용의 힘

정현천 지음 | 트로이북마 펴냄

김균우 사서·중앙도서관

저자는 생명제인 집단이긴 한데 사라진 것들은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빈민어떤 환경에도 적응하고 살아남은 존재들은 남다른 포용력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포용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장에 재해석 하였다. '포용'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다양한 사례와 뛰어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Merry
Christmas



테마전시코너

도서관에서 즐기는 Warming & Healing!

추운 겨울 실내 활동을 찾고 있다면 "도서관 속 미술관"은 어떨까요?

각국의 그림들과 미술가 등 평소 생소한 분야의 책들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그림 감상을 하며 종종 언플과 마음을 녹여보아요~

기간 | 2018.11. ~ 2018.12. 장소 | 중앙도서관 3층 자료실



그림 속 소녀의 웃음이 내 마음에

▣ 선동기 지음 ▣ 율유문화사 펴냄

그림 읽어 주는 남자! 이 책을 읽는 자!가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림을 특유의 다정다감한 해설과 공감 가는 이야기로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미처 몰랐던 화가들의 정보 그리고 소소한 감동이 바람에 흔들리는 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 줄 것이다.

#그림읽어주는남자 #에세이 #미술이야기



사랑의 그림: 영화 속 눈먼 욕망과 연애 유희

▣ 최정은 지음 ▣ 세미콜론 펴냄

인류의 영원한 화두 '사랑'을 테마로 서양미술의 걸작들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사랑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금과 그림들을 중심으로 당대의 연애 풍속과 사랑의 내밀한 속성을 살펴보면서, 사스럽고 세속적인 욕망 속 와전할 수 없는 공감대를 느껴보자.

#남녀상열지사 #서양미술 #사랑



아트로드, 한국을 담다

▣ 김물길 지음 ▣ RHK 펴냄

그림을 그리며 여행하는 젊은 아티스트 김물길 이 책은 그녀만의 감성으로 한국의 자연과 계절 그리고 사람을 담아내고 있다. 책 속에서 그녀의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구석구석의 자연의 변화와 사람을 향하는 따뜻한 시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여행 #사계절 #아트로드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 이일수 지음 ▣ 시공아트 펴냄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 18명의 그림을 통해 임금 왕족에서 유배자, 서열 가장까지 조선 사람들의 생생한 일상을 만나보자. 옛 그림 한 점 한 점에 기록된 당시 모습들이 차열했던 현장을 전달해줄 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깨달음을 전해준다.

#조선화가 #한국미술 #21세기의조선